

조선시대의 청계천



김 현 준 | 선임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연구부, hjkim@kict.re.kr

1. 청계천(淸溪川)의 유래

청계천은 경북궁 서북의 백운동에서 발원하여 백악, 인왕산, 남산, 매봉 등을 유역 경계로 하고, 서울의 도심부를 관통하여 중랑천에 이르는 길이 13.7km의 하천이다.

청계천의 원래 이름은 개천(開川)이었다. 서울이 조선의 도읍지로 결정된 이후로 자연하천을 보수하면서 개천이라 부르게 되었고, 청계천이란 이름은 백운동 계곡의 물줄기를 청풍계천(淸風溪川)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청계천은 일제 강점기의 “대정성계획”의 일환으로 복개계획이 검토되었으나 구상으로 멈추었고, 한국전쟁 이후에 서울의 늘어난 인구와 주거공간의 악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복개공사가 시작되었다. 1958년부터 1978년까지 광화문에서 신답 빗물펌프장의 5.4km 구간이 완전 복개되었다.

청계천은 조선시대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대규모 공사를 겪게 되었는데, 그 주 목적은 홍수로 인한 범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영조 28년에 개천의 준설공사에 대한 타당성을 백성에게 물어보는 자리에서 백성들이 말하기를 “저희들이 어렸을 때에는 말을 타고 다리 아래를 지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은 다리와 모래가 서로 맞닿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 것으로 보아도 토사로 인하여 하천의 통수단면이 부족하여

홍수피해가 크게 있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2. 청계천 준천(濬川)공사

태종은 최초로 도성(都城)을 관통하여 흐르는 개천을 준설하였는데, 태종 11년에 개천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수를 위해 개천도감(開川都監)이 설치되고 52,800명의 인원을 동원한 대규모 공사가 시작되어 청계천은 자연하천에서 개천으로 변하였다.

세종 때는 한성부사가 도성의 개천에 물이 막히는 원인과 대비책을 조목조목 상소하였는데, 태종 때 완성하지 못한 개천의 하류 및 지류에 대한 준천공사를 하고 종루(鐘樓) 지역은 지대가 낮아 침수가 잘 되기 때문에 별도의 냇길을 뚫어 배수가 잘되게 하며, 큰 비에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나무다리를 돌다리로 바꿀 것을 상소하였다.

영조는 개국 초에 실시했던 개천의 준설 공사를 대규모로 다시 시행하였는데, 몇 년간 지속된 기근(饑饉)으로 한양(漢陽)의 인구가 증가하고 이들이 도시빈민이 되어 개천주변에 살면서 개천이 하수구로 더럽혀지고 홍수시 범람 위험이 있자 대규모 준설공사 실시하였다. 이 공사는 개천 정비는 물론이고 실업자 구제 측면의 대규모 공사이었다. 20만의 인원이 동원되어 57일간 개천의 폭을 넓히고 양변에 석축을 쌓고 수로를 직선화하여 현재의 청계천 수로의 원형이 되었다.

순조 때도 영조이후 간헐적으로 시행되던 준설공사를 대규모로 실시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2.1 조선 최초의 준천(濬川) 공사

태종은 왕권의 확립을 위하여 한양으로 천도를 하였고, 따라서 인구가 한양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개천을 준설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태종11년 12월 1일에 개천준설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태종이 각 도에 수도의 개천 준설을 알렸는가를 묻자 좌정승이 충청도, 강원도에 이듬해 2월 초에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알렸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태종은 급년은 윤12월 15일이 입춘(立春)이니 정월 기후가 따뜻할 것이므로 정월에 공사를 하고 충주창(忠州倉) 공사가 할당된 경상도를 빼고 전라상도의 백성도 부역시키라고 하였다. 이에 태종 11년 12월 14일에 개거도감(開渠都監)을 설치하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의 3도 군인으로 하여금 정월 15일부터 공사를 시작할 것을 명하였는데 당초의 강원도가 빠지고 제외하기로 하였던 경상도가 포함되었다. 예조와 사간원에서는 동절기에 공사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상소하였으나 태종은 공사가 시급함을 내세워 밀고 나갔다. 태종12년 1월 10일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군정을 사역시키는 수칙(役軍事宜)을 내렸는데 인정(人停)¹⁾후에서 파루(罷漏)²⁾까지 일을 시키면 감역관을 죄주겠다고 하였다. 또한 전의감, 혜민서, 제생원 등에 하달하여 미리 약을 제조하여 병든 자를 빨리 치료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였으며, 동원된 인력이 한양으로 이동하는 고을에 명하여 이들을 구호하고 얼어죽지 않도록 하라는 세심한 배려까지 하였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정월 15일부터 시작된 공사는 2월 15일에 완료되었는데 동원된 인부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군인 52,800명이었다.

이들에게는 공사기간 동안 군자감의 쌀 4만 4백석을 내주어 일인당 3두(斗)씩 나누어 주었으며 반 달치의 양식이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공사는 정월 보름부터 시작되어 한 달이 걸린 것으로 보아 나머지 식량은 자기 소속지에서 수송한 것으로 보인다. 태종 때의 준설 공사는 종묘동 어귀부터 문소전과 창덕궁 문앞을 돌로 쌓고, 종묘동 어귀부터 수구문까지는 나무로 방축을 쌓았으며 대광통, 소광통, 혜정, 정선방, 신화방 등의 다리는 모두 돌로 쌓았다. 이때 광통교³⁾의 다리를 쌓는데 태조의 계비인 신덕황후 강씨릉(陵)의 상석을 가져다가 사용하였다.

2.2 조선 최대의 대규모 준천 공사

영조는 도성을 가로질러 흐르는 개천의 준설을 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는데, 영조 28년 1월 27일에 광통교에 나가 인근 주민에게 준천에 대한 의견을 물으니 주민들이 다 찬성하였다고 한다. 이에 영조 35년 10월부터 개천의 준설을 위한 제반 작업을 진행시켰는데, 먼저 동년 10월 6일 흥봉한, 이창의, 흥계회를 준천당상으로 삼고 절목(節目)을 만들라고 하였고, 그 이틀 후에는 몇몇 대신을 보내어 지형을 살피게 하였다. 다음 날인 9일에는 한성부당상이 준천도를 올렸다고 한다. 여기서 준천도는 설계도와 같은 의미로 보인다. 동년 10월 15일부터는 자원자들을 모집하였다. 영조의 준천 공사에서 특이한 점은 인력 동원에 자원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만여명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군(募軍)⁴⁾이라고 하여 일당을 주고 노역을 시켰는데 도시 빈민을 위한 배려였다. 당시 조선은 몇 년째 기근이 들어 지방에서 한양으로 인구가 유입되었는데 1657년의 한양인구가 팔만여명에 불과하였으나 12년 뒤인 1669년에는 19만 여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 빈민이 증가하고 사회분

1) 야간통행을 금하기 위하여 큰 도시에서 밤마다 이경에 치던 쇠북을 일컬으며, 여기서서는 이경, 즉 오후 10시쯤임.

2) 원래 오경삼정에 큰쇠북을 서른세번 치던 일을 일컬으며, 여기서서는 해가 뜨기 직전을 의미.

3) 서울의 을지로에 있는 광고사거리로 조선조에도 행인의 통행이 제일 많은 곳이었다.

4) 품삯을 받는 일꾼

보고를 보면 영조 이후 2~3년 간격으로 준설하였으나 지금 피해가 큰 것은 크게 공사를 벌리어 장구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며, 또한 만전을 다 할 것을 하고하고 현저한 실효가 없을 때에는 직무를 다 하지 못한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순조 때에는 준천사에 비축된 돈이 적었던 것 같다. 부족한 물력을 채우기 위하여 선혜청, 균역청 등지에서 돈을 빌어 사용하였다. 순조 33년 4월 19일 송기교에서 영도교까지 전 구간에 대하여 경진년의 지평으로 개천을 팠다고 하였다.

3. 맺음말

태종 때부터 시작된 개천의 준설 사업은 마지막 공사인 고종 30년(1893)까지 2~3년에 한 번꼴로 시행

되었으며, 때로는 대규모의 국가적 사업으로 수행되기도 하였다. 영조 36년의 대공사 이후로는 광통교와 수표교의 교각에 경진지평(庚辰地平)이라는 글귀를 새겨 넣었다. 하천에 토사가 쌓여 이 글자가 안 보이게 되면 이 글자가 보이도록 준천공사를 시행하게 하는 준천공사의 기준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전 기간에 걸쳐서 청계천에 대한 준설공사를 수행하였으며, 공사의 계획과 과정 등의 기록을 남겨 놓아 후손들이 활용하도록 하였다.

영조대왕께서 남긴 말을 가슴 깊이 새겨본다.

“준설을 하는 것은 다만 토목공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백성을 위한 것이고, 둘도 백성을 위한 것이다.”

참/고/문/헌

김현준, 조선시대 하천공사 기록 조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98
 김현준, 조선시대 홍수기록 조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99
 우효섭·김혜순, “200년전 청계천의 개수공사”,

한국수자원학회지, 제28권 제3호, 1995. 6
 전우용, “청계천과 천변: 공간과 상징의 역사”, '98 서울학 심포지움(청계천과 천변: 시간, 장소, 사람),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1998. 11